

OG7 외암리 영암댁의 공간구성과 식재의 특징에 관한 연구

장미아

경원대학교 조경학과

1. 서 론

영암댁은 조선시대 후기에 지어진 대표적인 상류주택이다. 이 주택은 건축에 관한 연구에서는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정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 과제가 남아있다. 그 중에서 사랑채 정원은 전 면적에 걸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상류주택에서 보기 드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영암댁의 공간구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식재상에 나타나는 특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2. 영암댁의 연혁

영암댁은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에 위치하며, 외암리는 조선시대 전통주택이 모여있는 마을로서, 1978년에는 민속보존마을로 지정되었고, 1988년에는 전통건조물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영암댁은 1998년 중요민속자료로 국가지정 되어있는 매우 의미있는 주택이다. 외암리에 사람들이 모여살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초기인 14C로 알려져 있으며, 명종년간(1545~1567) 李珽(?~1546) 一家가 정주하면서 이씨 집성촌이 형성되었고, 조선말기에는 400호가 넘는 매우 큰 마을을 이루었다.

영암댁의 부지는 입향조 李珽의 6대손 李乘(1677~1727)대에 정해졌다고 한다. 이간은 매우 유명한 유학자로서 각지에서 그의 학문을 배우려 제자들이 모여들어 이때에는 서원, 강당, 사당 등의 건물이 외암리에 즐비하였었다고 하며, 영암댁의 부지도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고 한다. 이간의 호인 巍巖은 마을의 이름이 되었고, 그후 획수가 적고 한자동음인 外岩으로 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보여지는 영암댁의 사랑채와 안채는 이간의 6대손 李相翼(1896~1897)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하며, 정원에는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사랑채 정원의 소나무 거목들과 파초 등도 이때의 식재라고 전해진다. 그 후 이상익의 손자 李用琦(1896~1980) 때에 사랑채에 장남의 방이 증축되었고, 정원에는 정자가 세워졌으며, 선대부터 있었던 별당이 없어지고, 연못의 형태, 정원에 관목을 식재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3. 영암댁의 배치와 구성

외암리마을은 북동쪽에 위치하는 풍수상의 祖山 雪華山(해발 441m)에서 남서로 뻗어 있는 능선 위의 비교적 평평한 곳에 형성되어져 있다. 마을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는 駟川은 마을의 남쪽 경계선을 이루고 있으며, 여천 넘어로 풍수상의 朝山 廣德山(해발 699m)이 위치한다.

영암댁의 주변 지형을 보면 설화산에서 남서로 뻗은 능선이 영암댁에서 동북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서 두 개로 나뉘어져 각각 영암댁의 좌청룡·우백호를 형성하고 있다. 영암댁은 좌청룡을 형성하고 있는 능선에서 분리된 능선을 주맥으로 하고, 이 주맥을 등지고 있는 형상으로 입지하여 남서를 바라보고 있다.

이 주맥은 영암댁 동북쪽 담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작은 봉우리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풍수상의 入首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주맥은 안채를 향하여 흐르고, 안채는 주맥에 直交하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안채 북동쪽에 있는 사당은 주맥에서 갈라져 나온 지맥에 직교하는 형태로 배치되어 안채와는 다르게 남동쪽을 향하고 있다. 사랑채는 전면의 지반보다 후면의 지반이 1m 정도 높아 안채를 거쳐 내려오는 주맥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암댁은 마을을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도로의 북측에 위치하며, 이 도로에서 북쪽으로 꺾어진 길로 들어서면 영암댁 입구 부근에 은행나무가 한그루 심어져 있다. 은행나무는 조선시대 최고 교육 기관이었던 성균관 명륜정 앞뜰에도 심어져 있던 나무로 상류주택 입구 부근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은행나무는 지면에 직접 심은 경우와 단을 만들어 그 위에 심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단을 杏壇이라고 불렀다. 행단은 孔子가 緇帷의 숲에서 놀다, 杏花피는 土壇에서 휴식하고, 제자들이 독서했다고 하는 고사에서 유래하여 후일에는 서당 또는 강당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고사에서 알 수 있듯이 행단에는 살구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은행나무를 심은 연유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다.

은행나무 북동쪽으로 즉 영암댁의 대문 앞에는 수로가 조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대문 앞에는 수로, 연못과 같은 물과 관련있는 시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풍수의 이론인 「氣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의 영향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대문앞 수로는 기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영암댁 대문 전방 남서쪽부터는 지형이 경사지면서 여천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 경사지에 전술의 은행나무에서 25m 떨어진 곳에 수령 550년의 느티나무가 서있다. 이곳에 옛날 영암댁의 대문이 있었다고 하며, 대문안에는 하인이 살던 행랑채가 있었다고 한다.

영암댁 대문을 들어서면 대문 양쪽에는 하인이 살던 행랑채가 있으며, 현재는 손님들이 머무는 아래채로 개조되었다. 이 아래채에서 정원은 사이에 두고 사랑채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은 기와를 얹은 담으로 둘러 쌓여져 하나의 공간을 이루고 있다.

사랑채 뒤쪽으로는 안채가 자리 잡고 있으며, 안채 서쪽에는 식량을 저장했던 창고가 (현재는 식당) 있으며, 그 북쪽에는 장독대가 있다. 또한 남쪽에는 조모와 살림살이를 도와주던 하인이 기거하던 아래채가 있고, 그 북쪽에 사당, 그 이외에 디딜방아간, 샘터 등이 있다.

정원구성을 보면, 안채의 정원은 식재가 거의 없는 마당의 형태로 되어있는데 반하여 사랑채의 정원에는 수목이 많이 심어져 있다. 저자의 발표 논문인 연경당의 정원구성과 비교해 보면, 연경당 사랑채 정원은 왕자와 관련있는 의식이나 연회 등의 장소로 이용되어져 식재를 배제한 마당 형태가 요구되어졌다. 그렇다면 영암댁 사랑채의 경우는 제사와 같은 의식의 장소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고, 정원은 감상대상으로서 구성되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4. 영암댁의 식재

영암댁 사랑채 정원의 수목을 조사한 결과, 소나무의 경우, 흉고직경이 30cm이상의 것과 20cm 미만의 것들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이것은 영암댁의 정원이 이상익과 이용기 대의 2차례에 걸쳐 변화한 것을 생각하면, 흉고직경이 30cm이상의 것은 이상익 때의 식재이고, 흉고직경 20cm 미만의 것은 이용기 때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이상익 때의 식재를 구성해 보면, 사랑채 전방에는 소나무 4주, 사랑채 북서쪽에는 측백나무 6주, 사랑채 남쪽에는 향나무 4주를 심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못 동북쪽에는 소나무 9주와 단풍나무 2주를 심었다. 다시 말해 정원공간은 사랑채 전방공간과 연못주변의 공간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사랑채 전방공간은 수종에 의해 사랑채 전방, 북서쪽, 남동쪽으로 세분되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목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심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정원공간의 쓰임새가 장소에 따라 달랐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랑채 정원에 많은 수목들이 보이는 것은 사랑채의 정원이 제사 때에 사용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영암댁은 종가댁이 아니고, 또한 6대손 이상익은 양자로 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남자 형제가 없기 때문에 사랑대청에서 충분히 제사의식을 행할 수 있어, 사랑채 정원까지 쓰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8대손 이용기 때의 식재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회양목 높이 1.2m의 생울타리로 공간을 구분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형태는 사랑채의 기단선과 평행하게 회양목 생울타리를 조성하여, 사랑채 건축을 위한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대문 양쪽의 아래채와 평행한 방향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생울타리는 대문간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다른 한곳의 회양목 생울타리는 장남의 공간을 한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몇 개의 열식 축선이 보이고 있는데, 이 축선은 건축물의 기단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수목을 심거나, 연못 도랑을 가로지르는 판석 다리나, 담장과 같은 구조물의 연장선에 수목을 열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식 축선들은 한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을 띠고 서로 연관없이 형성되어 있으며, 관목과 화목 들은 열식 축선을 무너뜨리는 형태로 식재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전체적인 정원의 분위기는 매우 자연스러운 형태를 띠고 있다.

참 고 문 헌

주남철, 1980,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정동오, 1986, 한국의 정원, 민음사

張美娥, 藤井英二郎, 李相都, 2000, 朝鮮時代の王宮・昌德宮の演慶堂における庭園と建築の關係について、ランドスケープ研究63(5)、p.393